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6. 2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, 다게스탄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기테러 발생

- 6.24 언론은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무장괴한들이 유대교 회당 및 정교회 성당 등을 습격하여 경찰관 15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였으며,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
 - ※ 해당 지역은 전체 인구의 80%가 무슬림으로, 무슬림 분리주의 반군의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부언

○ EU, 가자 전쟁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산 우려

- 6.24 EU 외교·안보 정책 대표 「호세프 보렐」은 가자 전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확산되기 직전이며, 인근의 EU 가입국인 키프로스 공화국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
 - ※ 그리스 외무장관 「조지 게라페트리티스」는 “EU의 주권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”이라며 키프로스를 지지한다고 발표

미주

○ 美 의회, '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' 촉구

- 6.23 美 의회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바,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통해 군사·경제적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며, 同 조약에는 한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즉시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
 - ※ 美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·쿠바·이란 등이며, '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'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부언

중동

○ 헤즈볼라, 이스라엘 본토 침공 가능 경고

- 6.20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, 「하산 나스랄라*」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인 갈릴리 침공도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
 - * 同人은 헤즈볼라에 10만명의 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훨씬 늘었다며 병력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됐다고 부언

- 예멘 후티叛軍, 홍해의 美 아이젠하워 항모에 미사일 공격 주장
 - 6.23 언론은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 북부에서 美 해군의 항공모함 아이젠하워號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해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으나,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
 - ※ 후티軍의 이번 발표는 한 달도 못 되는 기간 중에 아이젠하워 함이 홍해에서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는 두 번째 보도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무장괴한 총격에 언론인 피살
 - 6.20 언론은 파키스탄 파크툽크와州 술탄 켈 지역에서 언론인 「칼릴 지브란」이 무장괴한 2명의 총격을 받고 피살되었으며, 아직까지 同 범행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도
 - ※ 파키스탄 언론인 단체는 지브란이 테러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왔으나 당국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, '21년 8월부터 지난 2년간 언론인 11명이 피살

아프리카

- 아프리카연합, 소말리아 파견軍 3차 철수 발표
 - 6.17 언론은 아프리카연합이 소말리아 파견軍 4,000명을 6월말까지 추가 철수시킬 예정이며, '23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그동안 1차·2차에 걸쳐서 5,000명의 파견軍을 철수시켜 소말리아 보안군에게 인계했다고 보도
 - ※ AU의 평화유지 임무는 '07년 시작되어 소말리아의 안정과 재건 및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병력 및 UN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
- 나이지리아, 아프리카 사헬지역 지하디스트의 新거점 분석 제기
 - 6.20 아프리카 사헬지역을 연구하는 클링엔다엘 연구소(Clingendael Institute)*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지난해 베냉 북부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서북부로 건너가 카인지 호수 국립공원에 정착했다고 발표
 - * 同 연구소는 나이지리아 나이저州에 있는 5,300km² 규모의 이 공원 치안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,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부언

방글라데시 다카 외교단지內 인질테러 사건

방글라데시 내 자생테러조직

- '16.7.1 21:20 방글라데시 다카市 소재 외국공관 밀집 지역 인근 식당에서 「자마툴 무자헤딘 방글라데시 (JMB)」 조직원 7명이 다국적 민간인 20명*을 살해

* 이탈리아 9, 일본 7, 미국 1, 인도 1, 방글라데시 2



< 사건 발생 위치 >

- 총·칼·폭발물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약 10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인질들을 철저하게 '무슬림 vs 非무슬림'으로 구분, 쿠란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 외국인 非무슬림만 살해
 - 한편, 경찰은 교전·설득을 병행하다 7.2 07:40경부터 인질 구출 작전을 전개, 13명의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들을 소탕(사살 6, 생포 1)
- 특히, 테러범 대부분들이 유복한 환경·명문대학 출신 엘리트 계층으로 밝혀지면서,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이 급진주의에 쉽게 물든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사례로 기록

⇒ 최근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관련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

* 국내 체류 이슬람권(57개국) 인구수는 약 36만명(5.31 기준, 법무부)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자마툴 무자헤딘 방글라데시(JMB) >

- (목 표) 방글라데시 세속정부 타도 및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이슬람국가 건설
- (조직규모) 약 100명('19.11, 방글라데시 보안당국)
- (주요인물) 창설자 「압둘 라흐만」, 수괴 「살라딘 아흐메드」
- (연계세력) 「자마테 이슬라미」(이슬람 원리주의 정당), 알카에다, ISIS
- (활동지역) 방글라데시(자말푸르·탄가일·마이멩싱주 등)와 인도 동부 벵갈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 도시에서 경찰·非무슬림·외국인 대상 폭탄테러·총격, 산악오지에서 軍 대상 게릴라戰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 강탈
- (주요활동) ① '05.8 전국 63개市의 공항, 정부청사, 주요 호텔 등에 소형폭탄 459개로 연쇄 폭탄테러 자행(2명 사망, 150여명 부상)
② '16.7 수도 다카 외교단지 인질테러 29명 사망(인질 20, 경찰 2, 테러범 7)